

남원 시민·정치권 “공공의대 설립 약속 이행하라”

“정부, 공공의대 설립 반대 실체 있는지 밝혀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과 남원시민들은 19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2017년 논의를 시작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이미 나주에 개교를 했는데 2018년부터 논의된 남원 공공의대는 국회 법안소위도 통과시키고 있지 못하다.”며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지역균형을 위해 지역 공공의대를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공공의대를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 호지부지 되고 있다”며 규탄의 메시지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남원 공공의대는 기존의 사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만드는 대학이다”며 “의사협회가 염려하는 의사 정원 증가가 아닌 감염병 및 중증의상, 산부인과 등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이다.”고 역설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한정 공대는 일사관리로 진행되어 22년도에 나주에 개교했다”며 “그동안의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정부와 국회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에 일의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며 비판의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새 정부의 여당인 국민의 힘 새시대준비위원회에

서 2021년 12월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며 여당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요청했다.

민주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공공의대, 감염병·중증의상 산부인과 등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 정부·국회 미온적 태도로 일의 진행 늦어져” 비판

공공보건의료대 설립 법안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박희승 위원장은 “부당한 대학정책으로 심각한 경제위기와 지방소멸위기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설립되는 그 날까지 당원 및 시민과 함께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원순창임실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률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률안은 2018년 정부와 국회가 합의했으며,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폐기되고 현 21대 국회에서는 김성주·이용호 의원이 폐기된 법률안을 재발의했다. /김경수 기자

출향도민 교류협력

사업 범위 확대

박정규 도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전북도의회 박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실군)이 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94회 정례회에 대표발의했다.

박정규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향도민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청 홍보 등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출향도민과의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출향도민 중 ‘고향사랑명예대상’을 위촉하기 위해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동안 출향도민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출향도민 문화·체육 행사 개최, 출향도민 송년·신년 행사 지원 등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었으나, 지원범위를 폭넓게 확대하였고, 출향도민들을 상대로 한 도정시책의 홍보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출향도민 중 도정정책홍보에 관한 활동,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지역 공산품 및 농특산물 홍보에 관한 활동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활동 등과 같은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는자에 대해 “고향사랑명예대상”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조례안을 발의한 박정규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을 개정해 출향도민들과의 교류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도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장은 지난 1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찾아 남원·임실·순창 박희승 지역위원장과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와 촉구 결의안’을 전달했다.

“공공의료대학 남원에 설립을”

남원시의회, 민주 이재명 대표에 촉구 결의안 전달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장은 지난 1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찾아 남원·임실·순창 박희승 지역위원장과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와 촉구 결의안’을 전달했다.

이날 전평기 의장은 남원시회봉사단체협의회와 남원시발원협의회 등 남

원지역 시민단체로 꾸려진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김대규)와 도청에서 공공의대 설립 촉구를 위한 피켓시위를 진행하며,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와 촉구 결의안” 전달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을 향한 남원시민의 뜻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국 최초 토하 양식기술 3건’ 특허 등록

전북도, 대량생산 통한 대규모 산업화 가능성 ‘첫 발’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전국 최초로 토하 양식기술 3건’을 특허등록하고, 토하 양식을 확산해 내수면 양식산업의 다양성 확보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한다.

도 수산기술연구소는 2019~2021년까지 3년에 걸쳐 자체 시험연구 과제인 ‘토하(새뱅이) 양식 기술 개발’을 추진해 완전양식을 위한 핵심기술 3건에 대해 지난 8일에 최종 특허등록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특허 기술 3건은 새뱅이 교유 습성을 활용한 선택적 선별장치 및 방법, 대량생산을 위한 성숙 및 포란유도 방법, 노동력 절감을 위한 맞춤형 대량출하 포획 방법이며, 토하 양식의 가장 핵심적 기술로 민간 양식현장을 반영한 실증시험 연구를 통해 전국 최초의 체계적인 토하양식 기술 개발을 확립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토하류는 ‘국내 토종 갑각류 중 민물새우류를 총칭 하는 표현으로 지역별로 4~7종이 존재한다.

민물고기 대비 거부감이 적고 국내 수요가 높은 품종이지만 대부분을 어획에 의존하고 있으며, 어획량도 소량으로 전국에 소매 유통되고 있어 산업적 가치가 높은 토하류를 면밀히 분석 및 조사한 결과, 대량생산이 가능한 새뱅이(Carina denticulata denticulata De Haan)를 단일 품종으로 선택해 집중적으로 시험연구를 추진해 왔다.

또한 새뱅이는 일반적인 어류나 갑각류와는 습성이 달라 타 품종에서 이미 확립된 어미 육성관리 및 사육수질관리 등의 기술을 응용하기가 어려워 독립적인 시험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뱅이의 여러 특징을 규명하게 되었으며, 특히 동종을 포식하는 공식 현상이 적어 고밀도 사육이 가능하고, 동물성 단백질 요구량 또한 적어 배합사료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어 노동력 위주 경영과 고비용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친환경 생산까지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내수면 양식산업은 민물고기 위주로 레시피 가공 방법이 활어 및

냉동 선어를 활용한 탕·찜 등에 국한됐으나 새뱅이는 각종 레시피에 첨가 가능한 주·부재료로서 다양한 가공 기술이 적용 가능하고, 어류에 비해 특유의 향과 부산물 등이 없어 대국민 기호도가 높은 품종으로 전국 내수면 양식 면적 1위(268/832ha, 32.3%)인 우리도의 지역적 유리함을 활용한 대규모 산업화 가능성이 크게 기대된다.

또한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해양수산부 ‘연구·교습어장 사업’에 ‘토하 친환 경 지속 대량생산 양식기술 개발’과제가 선정되어 민간이전을 위한 실증 시험연구 추진과 표준 양식기술 매뉴얼을 확립하고 매년 연구실적을 반영하여 개정·보급하고자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앞으로도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토하양식을 가장 경쟁력 있는 내수면 양식산업으로 육성하고, 빠른 시일내에 어업인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교부가치 사업 을확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학부모들과 농촌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

순창군의회, 정책간담회 개최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아)가 19일 순창군의회 위원회실에서 농촌 학교살리기 학부모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순창군 소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각 학교별 운영위원장 총 15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제9대 순창군의회 개원 후 농업인 관련 단체, 소상공인 단체 만남 이후 세 번째 갖는 간담회로, 농촌학교 살리기를 통해 실질적인 인구유입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들이 주로 논의됐다.

신정아 의장은 이날 건의된 안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의 협력을 통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

다. 또한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오수환 행정복지위원장은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순창교육의 미래를 고민해 볼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군 학교운영협의회 김종덕 회장은 “농촌 학교의 어려운 현실에 공감하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순창군의회에 감사하다”면서 “배움을 희망하는 순창 학생들이 차별이나 불편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순창군의회가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국힘, 주호영 원내대표 선출

이용호 의원, 42표로 ‘선봉’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106명 중 61명의 지지를 받았다. 열세로 보였던 이용호 의원(남원·순창·임실, 시진)은 42명의 지지를 얻어 선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 및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을 통해 주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뽑었다.

이번 투표에는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106명이 참여했다. 무효표를 제외한 103표 가운데 주 의원은 61표, 이 의원은 42표를 얻었다.

앞서 당내에서 유력한 ‘주호영 추대론’에 힘입어 주 의원의 압승이 예상됐던 것과 달리 이 의원이 선봉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

민주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쌀 초과생산량을 자동으로 정부가 매입하는(시장차리) 내용이 담겼으며, 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매입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의 판단에 따라 시장차리가 결정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으며, 실제 지난 5월 기준 산지 쌀값은 정곡 20kg에 4만1,185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25% 폭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윤준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매입 요건에 해당할 경우 자동으로 시장차리를 하는 ‘쌀 시장차리 의무화’를 주장해왔으며, 민주당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당론



으로 채택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준병 의원은 “쌀값의 안정은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우리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법안이 소위를 통과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 있을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윤준병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 국회에서 다양한 토론회와 간담회 주최 및 농민대화에 참석하며 쌀값 안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 TF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경수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문승우 도의원,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로부터 표창장 수상발아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은 지난 17일 장기기증의 고귀한 가치에 공감하고 생명의 나눔운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박진택 이사장)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했다.

평소 문승우 의원은 지난 2020년 전라북도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해 전북도 예산지원, 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장기기증 활성화 공로자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 왔다.

문 의원은 “하루 평균 약 7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장기기증은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일인 만큼 앞으로도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 활성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김경수 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열린 토론회 참가 신청접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관심 제고와 올바른 성숙한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해 11월 20일 대한민국 열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5년에 시작돼 대표적인 청소년 토론회로 자리 잡은 이번 토론회는 대학생부와 고등학생부로 나누어 개최되며, 대학생부는 19일부터 28일까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s.golr)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고 고등학생부는 각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참가팀 선발전을 개최하고 있다. /김경수 기자